

결핵상담실

상담. 김은배 중앙지회 복십자의원장

Q 목 부위에 몽우리가 만져져서 여러 검사 끝에 임파선결핵으로 확진 받고 4개월 정도 치료 중입니다. 목 부위 몽우리는 검사와 병변제거를 위해 수술로 없앤 상태고, 포도송이만 한 크기의 몽우리가 2개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 그 바로 옆에 약간 작은 크기의 몽우리가 하나 다시 생겼습니다. 치료를 받고 있으니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?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.

A 임파절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다 보면 치료가 잘되고 있어도 간혹 몽우리가 더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계속 치료를 잘 받으시고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치유됩니다. 일단 담당의사의 진찰을 받아 보시고, 만약 계속해서 크거나 수가 늘어난다면 조직검사 및 결핵균 배양검사를 요할 수 있습니다.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처방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
Q 지금 15개월 아이가 피부반응검사 결과 약을 복용해야 한다가에 유한징정을 일단 1개월 분 받았습시다. 우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궁금하고, 사내아이라 혹시 나중에 취업이나 군입대 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. 약부작용도 많다고 하던데 음식조절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뭘 먹어야 하는지, 모유수유 중인데 약 먹고 바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



A

아기의 경우 잠복결핵에 해당하며 현재 실제로 결핵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방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나중이라도 실제로 폐결핵이 발병하지 않으면 취업이나 군복무 등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. 약 한 가지를 복용하므로 일반적으로 부작용은 많지 않으나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은 받고 확인하세요. 약 먹고 30분 정도 지나서 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

29세의 남자친구가 폐결핵 진단받고 지금 2주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. 증상(기침, 가래, 열, 등)은 하나도 없었는데, 직장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 상 오른쪽 윗부분에 의심이 된다고 해서 CT 찍고 바로 약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도 좀 피곤한 거 빼고 이렇다 할 증상은 없습니다. 가래가 없어서 객담검사를 처음부터 못했는데요, 치료 기간 중에 가래가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? 또 전염이 걱정돼 엑스레이촬영을 했습니다. 엑스선상에는 정상으로 나왔는데, 객담검사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?

A

치료기간 중에 객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완치판정을 하기가 곤란해집니다. 치료기간을 채웠으나 객담 검사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'완치'가 아닌 '치료완료'라는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.

질문자의 경우에도 객담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, 흉부 X-선상 정상이고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객담을 받기 곤란하겠지요. 도저히 못 받으면 2~3개월 후 재검사 하도록 하세요. †